

2018. 02. 09.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2018년 3호

2018년 3호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구분(장르)	제 목	Key Word
심층이슈	<p>▶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IT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8'의 주요 특징 및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업계의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함</p>	정보통신기술 (IT)

2018. 2. 9.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비즈니스센터

심층이슈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 작성취지

-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IT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8’의 주요 특징 및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업계의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CES 2018의 주요 특징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8’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앤 월드트레이드 센터(LVCC)와 인근 전시장에서 개최
-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50개국, 3,900여개 전시업체, 18만여 명의 참석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됨
- 미국소비자기술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이동통신산업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와 함께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로 알려져 있음

- CES 2018은 (1) 게임·마케팅·음악·가상 및 증강현실 관련 광고,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섹션, (2) 자율주행차와 기술 관련 오토모티브 섹션, (3) 디지털 헬스·웨어러블 관련 건강 및 웰니스 섹션, (4) 홈엔터테인먼트·스마트 홈 관련 홈 앤 패밀리 섹션으로 나누어짐
- 이외에도 (5) 스마트시티·스마트에너지 관련 사물인터넷 섹션, (6) 3D프린팅·디자인 소싱 패키징 관련 제품 디자인과 메뉴팩처링 섹션, (7) 인공지능·드론·로봇 관련 로보틱스 앤 머신 인텔리전스 섹션, (8) e스포츠·스포츠 기술 관련 스포츠 섹션, (9) 스타트업 섹션 등 총 9개 카테고리로 구성. 5G, 스마트 시티(Smart cities)와 인공지능(AD),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관련 신기술들을 선보였음



[그림 1] CES 2018 행사장 전경 [출처 : CTA]

- 특히 이번 CES는 개막 전날 밤부터 내린 예기치 못한 폭우로 행사 운영에 차질을 빚었음. 전시장에 누수가 발생해 구글을 비롯한 일부 전시장에서 예

정되었던 신기술 발표 행사가 연기됐으며, 행사 이틀째인 10일에는 주요 행사장이 2시간 가까이 정전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음

- 또한 여성차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함. 온라인에서 CES 2018의 주요 키노트 스피커들이 모두 남성임을 비판하는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 #CESsoMale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커다란 이슈가 됨
- 이에 대해 주최 측에서는 앞으로의 행사에 여성의 목소리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¹⁾

2. CES 2018의 주요특징

1) 스마트 홈과 인공지능

- 지난해 CES에서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Alexa)’가 큰 인기를 끌었다면, 이번 해는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의 반격이 본격화된 해였음
- 지난해에 CES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미국 내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의 70%를 점유한 아마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전과 자동차 등 700여 제품에 알렉사 탑재를 알리며 인공지능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임²⁾
- CES에 처음으로 독자부스를 차린 구글은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와 영상을 결합해 차별화를 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LG의 2018년 텔레비전에 자사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어시스턴트를 탑재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구글과 아마존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글은 최근 아마존 알렉사로 구동되는 에코쇼 생태계에서 구글의 대표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구동을 제한하기 시작³⁾

1) Moyer, E. (2018, Jan 06). After outcry, CES sponsor says more women will be heard at confab. *Cnet*. Retrieved from <https://www.cnet.com/news/ces-2018-women-keynotes-speakers/>

2) Rubin, B. (2018, Jan 08). Google takes on Echo Show with four new smart displays. *Cnet*. Retrieved from <https://www.cnet.com/news/google-home-assistant-smart-displays-echo-show-lenovo-lg-sony-jbl-ces-2018/>

3) Ingraham, N. (2017, Dec. 05). Google is blocking YouTube on Amazon's Echo Show and Fire TV. *Engadget*. Retrieved from <https://www.engadget.com/2017/12/05/google-blocking-youtube-on-amazon-echo-show-fire-tv/>

- 많은 가전 제조사들이 자사의 제품에 아마존이나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하는 방식을 선보인데 반해,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Bixby)’ 음성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가전제품을 연결시키는 ‘스마트씽즈 클라우드(SmartThings Cloud)’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LG전자는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LG 씽큐(ThinQ)’를 전면내 내세우면서도,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사의 가전제품에 탑재해 호환성과 확장성을 강조하는 개방형 전략을 내보임

2) TV

- CES의 전통적인 주요 제품군인 TV와 홈시어터의 선전은 올해에도 계속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 역시 치열했음



[그림 2]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한종희 시장이 마이크로LED 기술기반으로 만든 모듈러 TV ‘더 월’을 소개하는 모습 [출처 :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모듈러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해 기존제품 대비 개선된 화질뿐 아니라 스크린의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146인치 TV ‘더 월(The Wall)’ 을 선보여, CES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USA 투데이, 월 스트리트 저널, BGR 등 유력 매체들로부터 총 41개의 상을 휩쓸며 단일 제품으로는 최다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음
- 또한 삼성전자는 AI고화질 변화 기술이 적용된 ‘8K QLED TV’ 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패밀리허브 냉장고’ 와 노트북 PEN, 삼성 플립 등이 호평을 받으며 CES 2018에서 각종 매체들로부터 총 116개 어워즈를 수상했음
- LG전자는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아 상자에 넣을 수 있는 롤러블 기술을 적용한 65인치 4K TV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으며, ‘LG AI 올레드 TV’ 는 엔가젯, USA 투데이, 테크레이더 등 유력 매체들로부터 22개 어워즈를 받는 등 CES 2018에서 총 70개 어워즈를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음



[그림 3] 곡면 55인치 OLED 246개로 만들어진 LG전시관의 모습 [출처 : CTA]

- 인공지능(AI) 컴퓨팅 분야 선도 기업 엔비디아(NVIDIA)는 BFGD(Big Format Gaming Display)라는 새로운 세대의 65인치 4K HDR 게이밍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PC게임 시장에서의 대화면 경쟁을 주도해 나감
- 이외에도 알렉사가 탑재돼 음성으로 조작이 가능한 옴토마 ‘UHD51A’ 프로젝터와 4K화질의 150인치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LG ‘HU80KA’ 등 가정용 고화질 프로젝터들도 인기를 끄

3) 로봇

- 올해에도 다양한 로봇 신기술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고, 그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제품은 소니의 인공지능 강아지 로봇 ‘아이보(aibo)’ 임
- 아이보는 사용자의 성격이나 집안 환경에 따라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고 사람이 만지면 발과 꼬리를 움직이며 강아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로봇임
- 1999년 첫 선을 보였다가 2006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탄생해 지난 해 11월 사전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하여 올해 11월부터 판매될 것으로 보임
-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얻어 화제가 된 헨슨 로보틱스(Hanson Robotics)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는 한국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의 보행 기술을 접목하여 최초로 걷는 모습을 공개해 언론의 주목을 받음
- 아이올로스 로보틱스(Aeolus Robotics)는 물건의 원래 위치를 기억해 제자리에 가져가 놓고 집안 청소, 설거지 등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 ‘아이올로스 봇’ 을 선보임
- 이외에도 프랑스 회사 블루 프로그(Blue Frog)가 개발한 가정용 로봇 버디와 일본 혼다(HONDA)의 자율주행 및 의자형 이동 로봇 등 4종의 3E 콘셉트 로봇, 그리고 대만 국책연구기관 ITRI의 체스 로봇, 일본 오므론(Omron)의 탁구 로봇 등도 높은 관심을 받았음
- LG전자는 로봇 포트폴리오를 충칭하는 브랜드 ‘클로이(CLOi)’ 를 선보이고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신규 로봇 3종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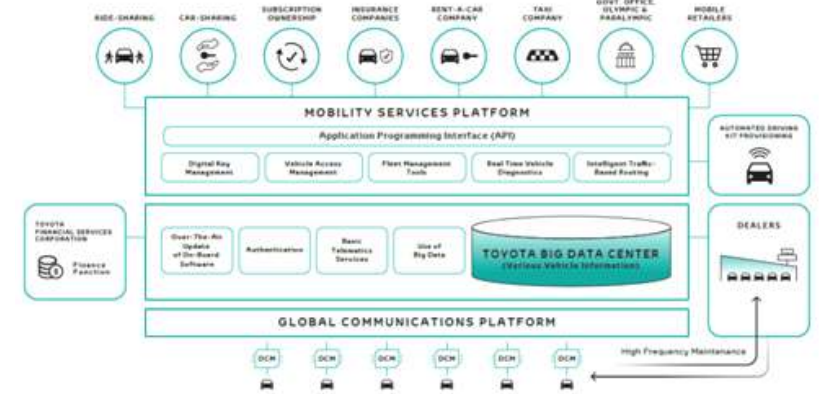
[그림 4] LG전자 미국법인의 데이비드 밴더월 마케팅총괄이 CES 2018에서 신규 로봇 클로이 3종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출처 : LG 전자]

- 하지만 LG 클로이와 소니 아이보의 경우 개막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시연자의 음성 명령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음

4) 자율 주행 및 전기차

- 2010년 이후 CES는 오토쇼를 방불케 할 만큼 하나의 전자기기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한 완성차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지난해 대비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전시공간이 23% 늘어나 CES에서의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번 전시공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포드, FCA (피아트-크라이슬러 오토모티브), 현대, 기아, 도요타, 닛산, 혼다 등 10개의 완성차 업체와 보쉬, 콘티넨탈,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참가해 자율 주행차 기술 및 다양한 미래차 기술을 선보였음

- 자동차 업계는 2020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 주행차 시장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기술이 주목을 끌었음



[그림 5] 도요타에서 자율주행 기반 e-플래트 콘셉트를 통해 구현하려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 [출처 : 도요타]

- 도요타는 CES 2018에서 향후 100년 비전을 밝히며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및 카셰어링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
- 이에 더해 차세대 자율주행 콘셉트 카인 ‘e-플래트’ 를 선보이며 이동과 물류, 판매에 이르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아마존과 우버, 디디추싱 등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메르세데스-벤츠는 엔비디아와 협업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지능형 학습 시스템과 운전자의 정서적 상태까지 가늠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개. 올해 4월 출시되는 벤츠 A클래스부터 적용해 상용화 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해당 기술이 완성단계에 있음을 확인시키기도 했음



[그림 6] CES 2018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공개한 차세대 인공지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 نيسان은 자율주행 기술과 e-페달 기술 등이 적용된 2세대 전기차 ‘리프(LEAF)’를 최초로 공개해 완성차로는 드물게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현대차는 2세대 수소전기자동차 ‘넥쏘(NEXO)’를, 기아차는 소형 SUV ‘니로(NIRO)’ 전기차 콘셉트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음

3. 정리 및 시사점

1)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시티로

- 이번 CES 2018은 ‘가전’이라는 기본용어의 개념이 TV, 냉장고 등 전통적인 가정의 범주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사람과 사물, 도로, 자동차 등이 스마트 시티에서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결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전통적으로 더 큰 화면으로 경쟁하는 TV 및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로봇과 자율 주행차,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의 범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임

2) 인공지능의 원년

- 이번 행사는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가전제품과 결합하는 특징을 보였음
-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언어적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노력이 필요

3)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들

- 올해 CES에서 전통적인 가전 시장의 강자였던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중국 업체들에게 기술혁신의 주도권을 뺏기는 인상을 남김
-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기존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화할 산업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
- 또한 삼성과 LG,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보완하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유연하게 실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중심의 개발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 미국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

- 김철민 센터장 : +1-323-935-5001 / cmkim@kocca.kr
 - 엘리홍 과장 : +1-323-935-5001 / ehong@kocca.kr
 - 권순형 주임 : +1-323-935-5001 / gavin@kocca.kr
 - 이민영 주임 : +1-323-935-5001 / irene@kocca.kr
-